

앨리스 먼로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노년의 삶의 긍정적 대안

남 승 숙
(한남대학교)

Nam, Sungsook. "Positive alternatives for Life in Old Age in Alice Munro's Short Stories."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6.3 (2020): 61-80. This paper explores the positive alternatives of Munro's discourse about life of old age. Munro discusses aging and dementia in several short stories. She pursues a positive way of life as opposed to the conventional negative stereotypes on the elderly and life of old age. For such pursuits, Munro's characters take a reformed, strange and heterogeneous path rather than the fixed familiarity. In the conventional order, in old age, they usually follow a single, comfortable way to "empty and give up," but Munro's elderly characters do not give up anything because of age. Instead, they maintain their own personality and adhere to being the subject of their own lives. That turns out to be their pride and the essence of life. Although their challenges are unfamiliar and unimaginable at first for the readers to accept, Munro's persuasive discourse opens a new epistemology on life of old age and provides the reader with a new awareness of life. These contents are explored in the main text "Pride" and the secondary texts "Dolly," "In Sight of the Lake," and "The Bear Came Over the Mountain." (Hannam University)

Key Words: Alice Munro, discourse of old age, elderly life, positives, pride

I. 들어가며

먼로(Alice Munro)는 여러 편의 단편 소설에서 노년의 삶, 치매 등을 담론으로 다룬다. 「곰이 산을 넘어오다」("The Bear Came Over the Mountain"), 「돌

리」(“Dolly”), 「호수를 바라보며」(“In Sight of the Lake”), 「자존심」(“Pride”) 등에서 먼로는 인물들의 평범한 일상을 소재로 삼아 대항적인 기치를 표면으로 내세우지 않으면서, 노년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 즉 무력화로 점철되는 노년, 혹은 종말로 향하는 치매질병 등의 인습적 사고에 도전하고 그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실제 삶의 모델을 창안한다. 평생을 단편작품을 썼고, 그것으로 처음 노벨상을 수상한 먼로는 단편 속에서 장편소설이 주로 이슈화하는 일상의 삶을 다루면서 장편소설 못지않은 담론을 이끌어낸다. 비평가 메이(Charles E. May)는 단편은 예술성을 보여주기 위한 인위적인 패턴의 기획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장편은 인물들의 일상적인 삶을 담는 현실을 강조한다고 주장한다(173). 그러나 「자존심」 등 이 논문에서 다루는 단편들에서 먼로는 단편소설이 초점을 두는 역동적인 긴장의 예술성보다는 일상에서의 시간의 추이를 다루며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담론을 전략적이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 그러므로 먼로는 단편소설의 특성을 벗어나 장편소설 같은 사실주의 기조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도를 단편 속에서 담아낸다. 먼로의 작품들이 단편이라기보다는 장편소설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처럼 그 소설들이 임팩트가 강한 기획성에 두지 않고, 현실에서의 보편적인 이슈를 담론으로 끌어내 펼치는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짧은 분량의 소설에서 먼로는 인물들의 일상을 소재로 삼으면서도 그 안에서 이질적이고 도전적인 시각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한다.

그러한 도전의 길을 모색하면서 먼로는 인습의 모순을 지적하거나 재구성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거나 요구하는 적이 없다. 대신에 먼로는 새로운 삶의 형태를 창안하여 자신이 담론화하고자 하는 재구성의 실체를 픽션 속에서 구현한다. 그것이 먼로의 독특성이며, 먼로가 해체주의 혹은 포스트모더니즘 작가로 분류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고령화시대를 맞으면서 사회학, 사회복지학, 노인학, 심리학 등의 학문영역에서 기존의 부정적인 노인의 전형을 벗어나 역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는 노인담론을 생산해내는데, 먼로는 픽션 속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노인들의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삶의 모습을 창안하여 직접 보여준다. 새롭고 독특한 먼로의 담론은 독자들에게 낯설게 느껴지지만 인물들의 개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삶의 실체적 유형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시대에, 인습화되어 친숙한 기존의 삶보다 강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으며, 독자들이 그러한 삶의 유형

을 배우고 직접 따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자존심」은 노년의 문턱에 있는 독신 남성이 일반적으로 여겨져 온 노년의 삶의 패턴인 ‘내려놓고, 포기하는’ 등의 삶의 고정성에 도전하는 서사이다. 먼로 소설의 화자 혹은 서술자는 대부분이 여성인데 이 소설은 남성화자가 남성의 시각에서 본 한 노년의 개성 있는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주인공이며 화자이며 서술자인 ‘나’는 노년기에 접어든다는 이유로 대체로 노년에 취하는 포기하고 관조하는 삶의 방식에 도전한다. 단지 그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소신과 자존심,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취향과 적성, 원하는 이성 상대의 타입 등 자심의 감정을 단지 나이 때문에 영향 받지 않는다. 이러한 담론은 미혼으로 살면서 노인의 나이에 이른 두 남녀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펼쳐진다. 이성 간의 로맨스일 법한 친숙한 길 줄거리 속에 먼로는 이질적이지만 혁신적인 노인의 삶의 한 양상을 제시한다. 먼로는 한 인터뷰에서 노년에 에너지와 목표의식을 상실하는 두려움을 밝힌 바 있다 (McCulloch 162). 먼로의 노년의 서사는 그러한 공포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돌파하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자 하는 담론을 내포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시대에 노인에 대해 변화하는 담론을 여러 분야에서 탐색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혹은 비교하며 먼로 소설의 새로운 모색을 분석하고 탐구할 것이다. 그 내용은 인습적 세계 속에서 그 이면을 포착하고 사유하는 인물들의 통찰력에 대한 탐색과, 인물들이 친숙함보다는 이질적인 길을 선택함으로써 지니게 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탐구이다. 「자존심」을 중심으로 이러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며 부차적 텍스트로 「호수를 바라보며», 「곰이 산을 넘어오다», 「돌리」 등에서 공유되는 노년의 삶을 위한 먼로의 긍정의 담론을 탐구할 것이다.

II. 노년담론의 인식변화와 「자존심」의 도전적 담론

「자존심」은 도입부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남성 주인공과 강자 중의 강자인 여성인물 오나이더(Oneida)를 이분법적인 우열의 위치에서 서술하기 시작한다.

그들이 노년기에 접어들기 까지 둘 사이에는 기존에 자리한 먼 거리의 공간이 존재한다. 이 큰 괴리는 인습적인 사회에서 흔히 존재하는 것이며 먼로는 이러한 현상을 팩트로 다룰 뿐 모순구조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먼로는 세속적 가치관에 따라 규정된 강자와 약자의 간극을 굳건하게 쌓인 벽으로 유지시키는 일이 없고, 또한 그러한 모순을 노출하며 파괴하는 적이 없이, 단지 인물들의 내면의 눈이 그러한 서열구조를 가짜로 보고 있어서 그러한 괴리가 아예 허위였음을 드러낸다. 먼로는 자본주의의 사회구조, 불평등, 불공정 등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서술자이며 화자이고 주인공인 인물인 ‘나’는 내세울 것 없는 소시민이고, 그가 서술하는 인물인 같은 마을에서 자란 같은 또래의 여자 오나이더는 다른 계급에 속해 있는 인물이다. 그는 오나이더에 대해 사회의 객관적인 눈으로 관찰한 내용을 사실적으로 담백하게 들려준다. 따라서 독자들은 전혀 공통점이 없는 별개 인물들에 대해서 듣고 그들의 괴리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우선 주인공은 인습적 세계를 인지하고 이해한다. 주인공은 오나이더와 같은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지만 사회가 그들을 다른 부류로 여기는 것을 안다. 오나이더는 사립 여학교에 다녔고, 금발머리에 얼굴도 예뻐다. 그 당시 오나이더의 아버지는 은행장 중에서도 막강한 은행장으로서 엄청난 재력의 소유자이고, 풍채가 좋고 카리스마 있고, 늘 위엄이 넘치는 풍모를 지녔다(137). 그녀는 그러한 배경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그녀는 좀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가 가게에 들어가거나 혹은 거리에서 걸을 때, 그녀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비켜서 작은 공간이 생기는 것 같았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위해 혹은 그녀가 인사를 건네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좀 당황하는 듯해도 품위가 있었고, 스스로에게 혹은 그 상황에 웃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물론 그녀는 좋은 체격에, 표정은 밝았으며 피부와 머릿결도 눈부셨다.

She had something different. When she went into a store or even walked on the street, there seemed to be a little space cleared around her, made ready for whatever she might want or greetings she might spread. She seemed then a bit flustered but gracious, ready to laugh a little at herself or the situation. Of course she had her good bones and bright looks, all that

fair dazzle of skin and hair. (137)

화자는 오나이더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며 오나이더 역시 자신의 상황이 제공하는 특권을 누린다. 반면에 화자는 홀어머니와 단둘이 사는데, 어머니는 백화점의 의류매장에서 수선 일을 하면서 근근이 살아가는 열악한 상태에 있다. 게다가 화자인 ‘나’는 얼굴에 장애를 지니고 목소리도 온전치 않아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도 상당히 제약이 있다. 화자는 그것을 알고 자신에게 합당한 부기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 수술로 교정을 했지만 여전히 언청이 자국이 남아 있어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은 꿈도 꾸지 못하고 부기 업무를 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136).

젊은 시절에 그들이 연인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시간의 추이와 함께 변화된 현실을 창조해내면서 먼로는 인습을 넘어 도전적인 노년 담론을 모색한다. 노년으로 접어드는 나이에 만난 그들의 상황은 다르다. 한 동네에 계속 살다 보니 화자와 오나이더는 우연히 만나게 된다. 부기 일을 하는 화자에게 오나이더가 집을 매매하는 문제에 대해 상의를 하게 되고 그것을 기회로 그들은 더러 만나게 된다. 오나이더가 화자의 집에 방문을 한 어느 날, 화자는 그녀를 위해 차를 끊어 주려고 하다가 현기증이 나서 정신이 혼미하고 몸이 온전치 못하자 오나이더가 부축을 해주고 간호를 한다. 며칠을 그렇게 보내다가 오나이더는 화자의 어머니가 쓰던 방에 자신의 짐을 가져와 풀고 기거를 하면서 화자를 돌보는데, 약을 먹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잠옷으로 갈아 입혀 주기도 한다. 화자는 오나이더가 해주는 대로 받아들이며 둘은 한 집에서 편안하게 기거한다. 그녀는 화자의 부엌살림도 능숙하게 해내서 식사 마련, 옷 챙기기 등 보통의 아내가 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화자는 인습적인 세상에 대해 파악하지만 그 방식을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삶의 방식을 추진한다. 인물들은 나이 들어가면서 몸도 아프고 일도 줄어들어 나가는 등 자연스런 노화의 과정을 겪는다. 아픈 계기는 변화의 기회를 가져오는데, 예상되는 소설의 구도에서는 흔히 우월한 위치의 오나이더가 몸이 아프게 되면서 고정된 틀이 변화하는데, 이와 다르게 이 소설에서는 열등한 주인공이 아프면서 예상 밖의 사건이 생긴다. 오나이더 쪽에서 뜻밖의 프리포즈를 한다. 그녀의 프리포즈는 노년에 접어드는 나이의 미혼남녀에게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성격으로 행해진다.

우리는 서로에게 보통이상의 좀 특별한 감정을 지니고 있다고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남매처럼 같이 살면서 서로를 돌볼 수 있고, 그것은 세상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그녀가 말하는 내내 나는 끔찍한 느낌이 들었다. 화나고, 무섭고, 소름이 끼쳤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는 말미의 말은 최악이었다. 나는 그녀가 하는 말을 알아차렸고,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에도 수궁이 갔다. 지저분한 농담 한 두 마디도 우린 듣지 않을 것이다.

We had a certain feeling for each other, she said. We had a feeling which was not just the usual thing. We could live together like brother and sister and look after each other like brother and sister and it would be the most natural thing in the world. Everybody would accept it as so. How could they not?

All the time she was speaking, I felt terrible. Angry, scared, appalled. The worst was towards the end, when she was talking about how nobody would think a thing about it. At the same time, I could see what she meant, and maybe agree with her that people would get used to it. A dirty joke or two we might not even get to hear. (149)

그녀는 그러한 제안을 자신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보다는 사회의 통념을 따르는 것이므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파악한다. 얼핏 독자들도 외롭고 쓸쓸한 노년에 접어들면서 이는 이상적인 제안이며 긍정의 결정이 뒤따를 것을 예상한다. 이러한 제안은 또한 주인공에게 황재, 혹은 행운의 기회라고 여겨지는 것도 일반적인 사고이다. 우월하고 매력 있던 강자 오나이더의 이러한 제안은 노년의 비움, 평등함, 배려 등의 성숙함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화자는 전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낮설고 이질적인 길을 택한다. 화자가 택하는 거절이 처음에는 예상 밖으로 의아하게 들리지만 그만의 내면의 판단과 취향 등을 화자가 표출하면서 각기의 개성과 주체적인 사고 등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나아가 노년의 삶에 대한 획일적인 관념에 구애받지 않는 화자의 방식이 하나의 긍정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먼로는 친숙한 통념과는 거리가 먼 개인을 그린다. 기존의 인습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노인이라면 적당히 포기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말년에 처해 있는 동질화된 집단으로 간주한다. 브레넌(Zoe Brennan)은 나이를 이유로 개인의 취향과 가치를 등한시하고 동질적 특성의 노인집단으로 간주하는 위험을 지적한다(18). 화자의 개성, 자존심을 그의 삶의 본질로 구체화 한 먼로는 이미 이러한 위험이 해소된 하나의 삶의 방식을 예시한다.

스쿠르톤(Steve Arnold Scrutton)은 노인을 개성이 있는 각 개인주체로 보지 않고 동질적인 집단으로 대하는 사고는 편견을 낳아 차별로 확대된다고 본다(13). 노인차별이란 나이로 인한 차별로 노인의 자존감을 훼손하거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인데, 쿠플랜드(Nikolas Coupland)는 이 차별에 대해 타인이 가하는 것 보다 자기비하가 가장 무섭다고 지적한다(279). 스스로 무력하게 여겨 사회나 가족 등에의 참여를 제한하고 포기하는 자기비하는 결국 타인으로부터의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나아가 쿠플랜드는 노인차별에 관한 담론은 사회에 미소하게나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280). 노년에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자존심」은 당연히 반 노인차별적인 서사로 노인인구의 급증시대에 개인을 넘어 사회적으로 필요한 담론을 제공한다.

스쿠르톤은 더 나아가 인권의 차원에서 노인차별을 계급차별, 인종차별, 성차별 등과 동일선상에서 파악한다(14). 노인차별은 태생적으로 특별한 소수에게 가해지는 차별이 아니어서 소홀히 되어 온 이슈이다. 그러나 바이더웨이(Bill Bytheway)의 주장처럼 나이 드는 현상을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과정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노인차별은 모두가 겪게 될 상황이므로 스스로를 추하게 만들고 모두에게 무익할 뿐이다(15). 골럽(Sarit A. Golub)은 노화는 변화의 과정이지만 반드시 쇠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노인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려면 노인에 대해 전형적으로 여겨진 모든 인습적 사고와 투쟁해야한다고 주장한다(280-81). 또한 노인이 생산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지식을 공유하고, 노인 스스로도 근거 없는 편견과 오명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Braithwaite 312). 「자존심」에서는 이러한 불평등 구조가 오히려 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만큼 작가가 의식적으로 사회의 모순구조를 이미 철폐하고 각 인물들의 개성에 따르는 재구성의 세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작가의 의도적인 기획은 개별적인 인격의 존중과 나름대로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

는 담론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오나이더의 경우, 젊은 시절 자신이 지니고 있던 후광과 그녀가 품어 하던 주변의 선망의 시선 등을 세월과 함께 포기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성숙의 과정인지, 자기비하인지, 노후의 의지를 위한 이기적인 선택인지는 텍스트 안에서 작가가 제공한 범주에서도 논의가 가능하다. 돈, 외모, 부친의 공인 명예 등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 그녀가 누렸던 특권들은 사실 그녀만의 내면적인 자산이나 그녀가 개인적으로 개발한 덕목이 아니다. 화자는 그녀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난 것을 신뢰하며 그것만이 모두인 그녀를 안타까워하는 것이 이상할지도 모른다. 그것도 내가 안쓰러워한다는 것을 상상해보라”(137)고 말한다. 주인공은 자신과 수직선상에 있던 그녀를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안타까운 존재로 여겨 온 것이다.

오나이더의 프리포즈와 화자의 거절 등의 평범한 에피소드를 독특한 노년의 담론으로 발전시키는 먼로의 전략은 인습적 질서와 극명하게 다른 내면을 지니고, 그 다름을 열악한 입장에서조차 주장하고 견지하는 자존심을 지닌 인물의 창조에 있다. 도전적인 화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외의 분노를 표출한다. 오나이더의 프리포즈를 받고 주인공은 “마치 지하실에 처박히고 평평한 문이 머리 위에서 쿵 닫히는 것처럼 느꼈다”(149)고 말한다. 주인공은 감정적으로 내키지 않는 여자와, 혹은 자신을 중성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돌봐주어야 할 불쌍한 아이처럼 여기는 여자와(147) 편하고 이득이 있다는 이유로, 마음을 포기하는 일에 분노를 느낀다. 그는 나이 드는 것이 많은 것을 바꾸고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고 인정하지만 감정만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이 부여한 그들의 상하계급적인 간극은 해체된다. 그 해체는 화자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지속적으로 존재해 온 자존심이 애초에 서열구조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에서 온다. 그에게는 해체고 말고도 없이 처음부터 자신의 한계, 범접하지 못할 우월한 오나이더의 세계 같은 것은 없다. 또한 나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경계성 덕분에 과분하게 오나이더와 같은 여자와 같이 살게 되는 행복 등은 안중에도 없다. 그저 오나이더는 자기 타입이 아니고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독자적으로 나름대로의 생활을 지속할 것으로 계획한다. 오나이더와는 배척할 것도 없고 오랜 지기이며 다정한 이웃인 채

로 남을 수도 있는 일이다.

위의 줄거리는 사실주의를 기조로 하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인습화 된 테두리를 벗어나 획기적인 도전의 길로 향한다. 먼로는 직접적으로 잘못된 관념이나 관행을 노출하지는 않지만 친숙하고 자연스런 사회현실을 물리치고 그 반대의 길을 주인공이 택하게 함으로써 다른 생각을 하도록 한다. 얼핏 이질적인 선택이 독자들에게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독자들은 포기를 자연스럽게 여기는 노년의 문턱에서 비움과 편안함보다 소신과 자존심을 중시하는 사고와 행동이 곧 주체적인 삶을 지키는 하나의 방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하우웰즈(Coral Ann Howells)는 먼로는 자신의 고향동네인 온타리오에서도 친숙함보다는 이질성을 강조한다고 주장한다(13). 낯선 세계로의 도전은 얼핏 불편해 보이지만 먼로는 그것을 부정적인 인습과 고질적인 고정관념의 세계를 뛰어넘기 위한 전략으로 삼는다. 모든 담론에서 일상 속에서 일상을 초월하는 낯선 길을 통해서 새로운 담론을 모색하는 것처럼 노인담론에서도 먼로는 이질적인 방식을 택함으로써 도전적인 담론을 끌어낸다. 「자존심」의 화자가 오나이더의 프리포즈에 그토록 기분 나빠 하는 것, 또한 그녀에게 들킬까봐 염려하는 그의 속마음이 그녀를 부러운 대상으로 흠모해 온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녀를 지금껏 안쓰럽고 안타깝게 여겨왔다는 사실 등은 모두 독자들의 예상을 벗어난다.

다른 소설에서도 먼로는 이와 유사하게 이질적인 서사로 새로운 담론을 끌어내는 전략을 편다. 전형적으로는 노인의 경우, 여성이 남성 배우자를 돌보는 성향이 지배적인데(Guinn-Musgrove 94) 「꿈이 산을 넘어오다」에서 먼로는 남편이 치매에 걸린 부인을 돌보는 스토리텔링을 펼친다. 이 소설에서 노인 남성 그랜트(Grant)는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자 돌봄을 받기만 하던 위치에서 돌보는 처지가 되어 자신의 삶을 반추한다. 그는 힘든 계기를 맞아 고통스럽고 고뇌의 시간을 지니지만 과거에 알지 못했던 변화무쌍한 삶의 양상들에 대해 깨닫고 그로 인해 삶의 이면을 성찰하고 사유한다. 남성노인의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는 그랜트의 스토리는 도전적이고 개혁적이다.

「자존심」에서도 먼로의 이질적인 서사는 그와 같은 특성을 지닌다. 화자는 세상의 근거 없는 맹목적 믿음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남자지만 계속 여자인 듯이 느끼고 남자로서 남자에 대한 우월한 믿음들에 대해 회의한다. 그는

“진짜 신뢰가 요구되는 일은 남자가 맡아야 한다고 여겨졌다”(138)는 맹목적 믿음을 거부하고 세상이 남자에게 부여하는 특권 같은 것을 생각하는 적이 없다. 흔히 노화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훨씬 더 부정적이라는 믿음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Gerike 41), 화자는 나이 들어가면서 오나이드의 불리해진 입장을 이용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개성적인 요소인 감정과 취향 등을 중시한다. 흔히 페미니즘에서 거론되는 여자의 위상, 남성 우위의 파괴 등은 이 소설에서는 이미 해체되어 재구성된 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먼로의 소설에는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약자가 묘사되는 대신에 소수자,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이미 창조되어 있다. 노인에게도 동등하고 평등한 원칙이 적용되어 있는 것이 아마도 먼로의 독특한 노인담론의 특성일 것이다. 화자는 라디오 뉴스에서 민간인을 태운 페리가 침몰한 사고를 듣고는 배회하며 삶과 죽음에 대해 사유한다.

나는 바다 밑바닥으로 사라진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야만 했다. 노파들, 뜨개질에 전념하던 우리 엄마 연배의 할머니들. 치통으로 아파하던 아이들. 빠져 죽기 전 마지막 반시간을 배 멀리로 불평하며 보낸 사람들. 나는 일부는 공포감 그리고 일부는-가장 근접하게 설명하자면-뭔가 짜늘한 환희가 교차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별안간 날아가고, 평등-나와 같은 사람과 나보다 못한 사람과 그들 같은 사람들 모두에 대한 평등함이라고-말해야겠다.

I had to think of the people gone to the bottom of the sea. Old women, nearly old women like my mother hanging on to their knitting. Some kid bothered by a toothache. Other people who had spent their last half hour before drowning complaining of seasickness. I had a very strange feeling that was part horror and part-as near as I can describe it-a kind of chilly exhilaration. The blowing away of everything, the equality-I have to say it-the equality, all of a sudden, of people like me and worse than me and people like them. (139)

화자는 노년에 접어들면서 언청이라는 장애 때문에 젊은 시절 기회를 찾지 못한 자신에게서 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얼굴에서 고통의 경험을 읽는다(151). 평등함에 대한 사유는 곧 인위적인 질서의 무용을 깨닫게 하고 세상의 인습에서 자유

롭게 한다. 이러한 평등함의 사고는 성차별, 인종차별, 노인차별 등 우열의 개념에 따른 수직질서를 거부하는 민주적 가치로 확대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다른 차별이 줄면 마찬가지로 노인차별도 줄게 될 것이다. 팔모어(Erdman B. Palmore)에 의하면 1960년대에 시작되어 1975년대까지 관심을 모은 인종차별이나 1970년대의 성차별보다 1990년대에 시작된 노인차별에 대한 관심은 훨씬 빨리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른다(6). 팔모어는 민주적인 이상은 개인적 장점의 기본 위에서 판단되어야 하는데 인종, 성과 마찬가지로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나이로 판단하는 편견과 차별을 비민주적인 것으로 간주한다(7). 그는 더 나아가 노인차별의 문제는 부분적으로는 문화지체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노인인구가 급증한 시대에 부정에서 긍정으로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요인으로 파악한다(86). 그러므로 노인으로 접어드는 시기에의 준비는 개인에게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시대적, 사회적으로도 중요하다. 이러한 준비로 먼로는 외부환경이나 사회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에 앞서 각 개인이 노년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내적인 대비를 강조한다.

상술한 평등, 반차별적인 사고는 우열의 개념이 이미 해체된 개성존중의 사고에서 기인한다. 먼로는 에세이 「실재란?」(“What is Real”)에서 소설 철학을 밝히면서 자신은 수직적이지 않은 구조에 전념한다고 말한다(223-26). 작가가 직접 밝힌 바처럼 「자존심」에서도 인위적인 수직질서는 사회적인 일반현상의 서술로만 그려질 뿐, 그러한 가치관이 인물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인물들의 각자의 주장은 서로 다른 개성 속에서 공평하다. 콕스(Ailsa Cox)의 주장처럼 먼로의 소설에는 일방적인 목소리의 특권이 없다(43). 사회적 강자이지만 오나이더는 일방적인 주장의 힘을 발휘하지 않고, 주인공 또한 유리한 입장을 점하게 되었다고 해서 권한을 부리는 경우가 없다. 화자는 세상의 일반적인 목소리에 함몰되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소리를 내지만 상대와의 상호작용을 허용하고 결코 독백의 상태로 들어가지 않는다.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존재에 대해 논하면서, 본래 세계 내부에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89). 또한 세계 속의 존재로서 “배려로서의 나의 존재가 가장 우위에 있는 것”으로(90) 파악한다. 독자들이 오나이더에게 호감을 갖는 것은 그녀가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스스로 변화하며

자신의 존재를 기꺼이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세계 속에 두기 때문이다. 그녀는 젊은 시절 서술자와 다르게 자신의 주장과 소신을 드러내곤 했다. 나이 들면서 그녀는 세상의 판단에 의존하는 언급으로 주인공과 배치되는 독자성 없는 사고를 나타내지만 한편 상술한 바처럼 상대에 대한 배려로서의 존재를 보여준다. 세계 내 존재가 현존재의 기본적인 상태라면 이는 일상에서도 이미 경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오나이더가 배려로서의 존재를 나타낸다면 서술자는 현실에 순응하지만 그 질서와 별도의 내적 존재를 견지한다. 그러므로 그의 내적 존재는 그 자체로 인습적 질서에 도전한다.

서술자가 택하는 내적 존재를 위한 이질적인 선택과 도전은 미래를 위한 긍정을 지향한다. 이는 먼로가 밝힌 것처럼 수직적 질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이지 않은 구조로 픽션을 창안하기 때문이다. 「자존심」의 초두에는 삼전 삼패가 아니라 이십 전 이십 패를 당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말하면서 그들도 결국은 나아진다는 언급이 있다(133). 또한 자존심의 서술자는 “의지만 있으면 어느 것에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134)라고 말한다. 주인공의 어머니는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꼭 밝은 면을 보고”(139) 주인공도 자신에 대한 세상의 잣대를 인지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나름대로의 길을 발전시킨다. 그는 지속적으로 해운 부기 일을 전문지식으로 쌓아 왔고 그것을 노년의 업무로 계획한다.

III. 먼로의 긍정의 서사들

「자존심」에서 주인공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독자성과 개성으로 노년의 위엄을 지키고자 한다면 「호수를 바라보며」에서는 이미 치매에 걸렸음에도 기억을 붙잡으려는 주인공 낸시(Nancy)의 모습을 통해 주체적인 자아를 지키려는 긍정의 분투가 묘사된다. 먼로는 인간이 아무리 노년에 달해도, 더 나아가 치매라는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어도, 자신이 스스로의 삶의 주인공이 되려는 내적 의지를 긍정적인 의미로 그려낸다.

현재 낸시는 중증 치매 환자로 병원에 입원중이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 그녀가 픽션의 인물로서 하는 행위는 그녀의 꿈, 혹은 상상

의한 것이다. 그녀가 꾸는 꿈 혹은 상상은 자신의 의지이며 의식과 무의식이 결합된 것이다. 낸시가 진료를 위해 의사와 약속을 하고 병원을 찾아가는데, 가는 과정 중에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병원을 잘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자의식적, 자아반영적인 정신 상태를 그린 것이 이 소설의 주요 내용이다. 낸시는 자신의 기억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그것을 우려하며 그저 정신만은 온전하기를 기대한다.

낸시는 독립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홀로 예약일 전날 병원을 미리 찾아보고, 당일엔 여유 있게 시간을 맞추려고 계획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낸시가 온전한 정신을 지니고 남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지만 번번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확실하게 준비한 병원의 주소와 의사 이름을 적은 주머니 속의 메모지를 꺼내보니 그것은 시누이의 신발 사이즈를 적은 것이다. 의사의 이름이 까마득히 기억에서 사라져버려 더욱 난감해진다. 낸시는 긴장 탓에 기억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합리화하기도 한다.

그녀는 “당신은 지금보다 과거에 더 분별을 잘 했다고 생각하나요?”(226)라고 거리에서 만난 한 남자에게 묻는다. 낸시의 이 질문은 자아 반영적이다. 그녀는 상대가 자신을 치매환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치매라는 질병을 놓고 대화하지만 서로 의식적으로 조심하며 내면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는 사이 낸시는 자신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치명적인 치매에 대해 끔찍한 공포를 느낀다. 공포 때문에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지만 그녀는 그러한 마음을 숨긴다.

낸시가 얼마나 자신의 치매에 대해 예민하게 긴장을 하고 있는지를 작가는 잠시도 늦추지 않고 그녀의 심리 상태를 통해 보여준다. 길에서 만난 남자가 아이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광경을 차의 뒤 유리로 관찰하면서 낸시는 자신의 치매와 결부시켜 상상을 한다. 그녀는 그 남자가 자신의 정신없는 상태에 대해 아이들과 농담을 나누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한다(223). 마음을 추스르고 온전한 정신을 지니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반복적인 묘사 속에 낸시의 힘겨운 투쟁이 나타난다.

낸시의 이러한 행위가 꿈이라는 사실에서 그녀의 의지가 더욱 강조된다. 병원의 침대에 누워서 육체적으로 제약을 받고, 정신의 질병까지 앓고 있는 상황에서도 낸시를 지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위엄과 주체성 지키기에 대한 생각이다.

그녀는 ‘포기하는’ 중국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대신에 어떠한 순간도 동일한 삶의 과정으로 여기며 자존심을 지키고자 한다. 자존심은 그녀의 현존재를 지키는 방어기제로 작용한다. 그린버그(Jeff Greenberg)는 긍정적인 노년을 위한 관념으로 자존심을 중요하게 꼽는다. 불안은 방어기제를 최소화하여 자존심을 위협하는데, 자존심을 지키려는 노력은 불안을 감축시킨다는 것이다(34). 그는 노인에게 자존심은 불안의 완충제로 기능을 하며, 자존심을 다룬 문학은 노인의 불안을 완화시키는 담론이라고 주장한다(34). 「자존심」의 주인공과 낸시의 자존심을 통해서 먼로는 노년의 ‘내려놓고, 포기하는’이라는 획일적인 전형을 깨고 독립심과 개성 존중, 그리고 주체적인 삶의 영위라는 긍정적 의미를 추구한다.

먼로는 이러한 긍정 지향을 인물들의 내적 존재의 의미추구에서 뿐만이 아니라 노인의 삶을 둘러싼 사회의 제반문화와 시설 등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기대를 한다. 낸시는 병원을 찾으러 다니던 중에 공원묘지, 장례식장을 마주치면서 노화의 퇴락과 무력, 죽음 등의 공포를 느끼고 민감해지지만 의식적으로 무심하고자 한다. 거기에서 서술자는 노인에 대한 세태를 들려준다. 작은 마을의 공장지역에 공장이 하나 둘 기울어가면서 한 업자가 나타나 그 마을을 요양원으로 바꾸려는 계획을 세운다(225). 낸시가 거리에서 만난 한 남자는 타운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이유가 노인들이 많아지면 그 마을이 우울한 곳이 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로는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낸시의 시각을 통해서 이러한 제반시설에 대해 밝은 면을 부각시킨다.

그녀는 격자문이 상상을 유도해 내는 게 참 좋았다. 공공건물도 개인 주택만큼이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변하고 있다. 칙칙하고 매력 없는 외양-그녀가 젊었을 때나 있었던-은 사라져 없어졌다. 그녀는 여기 아주 유쾌하고 환영하는 모습을 지닌 밝은 돔 건물 앞에 주차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식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원할 거라고 그녀는 생각한다. 그 모든 우리가 노인들, 심지어 그렇게 늙지는 않았어도 편치 않은 자들의 기분을 즐겁게 할 것이다.

She likes how the lattice provides a touch of fantasy. Public buildings have been changing in the past few years, just as private houses have. The relentless, charmless look-the only one permitted in her youth-has disappeared. Here she parks in front of a bright dome that has a look of

welcome, of cheerful excess. Some people would find it fakey, she supposes, but isn't it the very thing you would want? All that glass must cheer the spirits of the old people, or even, perhaps, of some people not so old but just off kilter. (229)

그린버그는 인류학, 문학, 회화, 영화 등에서 노화를 부정적인 결과와 연관 짓는다고 지적하며(34), 젊은이들이 노인을 외집단으로 볼 수 있지만 곧 자신들의 입장이 될 것이라는 진실이 노인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적인 답변이 되고, 세대차로 인한 노인차별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29). 카이트와 와그너(Mary E Kite and Lisa Smith Wagner)는 노인 차별주의자들의 태도로 노인 개인에 대한 감정적인 요소,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인 인지적 요소, 노인을 향한 행동 의도인 행동적 요소 등을 꼽는다(131). 먼로의 인물들은 이에 대항하는 자의식을 지니며 그러한 자의식을 통해서 카이트가 지적한 노인 차별의 세 가지 요소 모두를 거부한다. 그들은 또한 그린버그가 조언하는 노인문제의 해결안을 이미 실행하고 있다.

커디(Amy J. C. Cuddy)는 나이에 대한 인식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진행시킨다고 주장한다(3). 나이에 맞추어 사회적, 인지적 능력을 추론하고, 이러한 추론은 곧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정보를 찾고, 주의를 기울이고, 기억해야 하는지를 이끌게 된다. 낸시는 이러한 추론에 민감하여 자신을 바라보는 상대의 내면에 과잉 반응한다. 「자존심」의 주인공이 자신의 주체성을 자기 내면에서 찾는다면 낸시는 자신의 존엄성을 상대의 시선 속에서 통찰하려고 한다. 이는 낸시의 주체성 결여라고 간주하기 보다는 이미 스스로의 통제가 어려운 상태에서의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나타난다. 골드만(Mariene Goldman)은 이 소설의 제목인 「호수를 바라보며」에서 「보는」(In Sight)의 언어를 자신의 치매를 내면으로 「보는」(Insight)의 편으로 보면서 자신의 치매상태, 주체성 상실에 대항하는 마음으로 파악한다(287). 낸시는 자신의 상상 혹은 꿈속에서 요양원을 떠나 기억도 잘 해내고, 스스로 통제도 하면서 자유롭게 여행을 즐긴다.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지키고자 하는 이러한 자존심은 먼로가 강조하는 노년담론의 특성이다.

도전적인 치매담론으로 널리 알려진 「꿈이 산을 넘어오다」에서 주인공 피오나

(Fiona)는 자신이 치매에 걸린 것을 알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최선의 길을 생각하고 탐색하여 그것을 실행으로 옮긴다. 스스로 요양원을 물색하여 그곳에 들어가고 더 치매가 진행되어 자신이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상실하여 상식에 반하는 일을 무수히 하지만 간간이 정신이 들 때에 피오나는 위엄 있게 사유하며 소소한 생을 즐긴다. 먼로는 기억을 잃은 노인이 더욱 무력해 질 앞날을 스스로 대비하는 도전과 용기를 창안한다. 나아가 주변인들, 특히 배우자가 치매환자인 아내를 돌보며 이해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무수한 경우를 경험하면서, 고통스럽지만 인생에 대한 깊은 사유와 함께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긍정적인 담론을 펼친다. 먼로의 이러한 긍정의 담론은 단지 사고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반 독자들이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실제적인 대안의 것이어서 기존의 문학담론이 머무르던 이상과 상상, 사유의 세계라는 범주의 한계를 넘어서서 현실적 담론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한다.

「돌리」는 위의 내용들과는 달리 나이를 잊은 역동적인 노년의 삶을 담론화한다. 칠십 일세의 여주인공은 팔십 삼세의 남편과 다가올 죽음에 대해 상의하고 자신들의 장례 준비를 한다. 자신들의 현재를 인지하고 미래를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그들은 그러나 노화, 가까운 미래의 죽음 등을 결코 그들의 현 존재에 개입시키지 않는다. 아내는 남편의 이성간의 사랑의 가능성을 인정하여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질투를 한다. 남편은 아내의 이런 마음을 알고, 아내를 애태우기 위해 실제 그런 것처럼 가장하여 아내를 놀라게 한다. 극도로 긴장한 아내에게 그것이 농담이었음을 밝히자 아내는 안도감에 엉엉 운다. 일레이지만 그들은 이러한 긴장과 안도의 순간을 유발하는 역동적인 삶을 산다. 이러한 내용은 그들의 나이를 밝히지 않으면 마치 이삼십 대 연인들의 에피소드와 같아서 결코 노인들의 삶으로 상상하기 어렵다. 먼로는 이들의 나이와 죽음과 장례식 등을 언급하여 이들이 노년에 처해 있는 자신들의 현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 먼로는 그들의 현실인식이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삶을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역동적인 순간의 과정 속에 두는 긍정성을 부각시킨다. 이들의 삶의 방식은 나이로 인해 ‘포기하는’의 부정적인 방해요인을 아예 개입시키지 않는다.

쿠플랜드는 자기박탈이 가장 부정적인 노인차별을 불러 온다고 하며 노인들의 삶에서 긍정적인 양상을 끌어내는 것이 노인들의 죽음, 노화의 공포 등에 맞서는 전략이며 반 노인차별주의자가 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285). 「자존심」에서 주인공은 반 노인차별주의자의 시각을 더욱 견고히 한다. 그는 오히려 노년에 들어서면서 과거에 자신이 왜 타인들의 획일화된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스스로를 한계 지웠는지에 대해 후회의 반추를 한다. 그는 언청이 수술을 해서 완전하지는 않아도 꽤 괜찮게 교정을 했고, 목소리가 좀 특이하기는 해도 알아듣게 말을 하는 데도 왜 고향에만 머물렀던가를 자문하며 회의한다(138). 그는 “내 학창시절은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내 얼굴이 어떻게 보이는지-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익숙해지느라 다 소진되어 버렸다”(144)고 말한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고향에만 머물렀던 젊은 시절을 떠올린다. 흔히 많은 노년서사에서 젊은 시절의 지나친 욕망의 부질없음을 회고하는 것과 달리 「자존심」에서는 오히려 노년에 이르러서, 젊은 시절에 스스로를 제한했던 한계적 사고를 후회하며 수정한다.

이미 일을 줄여왔고 조심스런 노년을 기다린다(149)는 「자존심」의 화자는 시간의 추이에 따르는 물리적인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그 순환의 과정 속에서 모든 존재의 존엄과 개별적인 아름다움에 대해 긍정의 사유를 한다. 그는 도심 한 복판의 자기 집에 몰려온 새떼들을 보며 “진짜 아름답다”(153)고 느끼며 오나이다와 함께 그 순간 한 없이 즐거워한다. 팔모어는 노인에 관한 긍정적인 측면의 연구를 강조하며 이를 미래의 역할이라고 한다(199). 팔로어 등 노인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사회학에서 강조하는 노령화 사회를 위한 긍정의 담론들은 이렇게 먼로의 픽션에서 창조되어 실행되고 있다.

IV. 나오며

먼로의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사처럼 보이는 사소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사회적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거대 담론이 체현되어 나타난다. 먼로는 어떠한 거대담론의 언급이나 주장도 없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모델적인 삶의 모습을 창안한다. 바흐친(M. M. Bakhtin)은 소설에 관해 논하면서 개별적인 등장인물의 담론은 소설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하며 그들의 개성적인 측면들은 사회적인 의미와 사회적인 넓이를 추구한다고 주장한다(333). 바흐친의 주장보다 더 나아가 먼로의 인물들은 노인들이 급증하는 고령화시대에 사회의 긍정적인 대안이 되는 삶을 이행하여 현실의 반영을 넘어서서 미래의 긍정적 방향을 주도한다. 그러므로 상상의 영역이나 이념적인 범주를 넘어서서 먼로의 소설은 구체적인 현실대안으로의 의미를 지닌다.

「자존심」에서 주인공인 화자는 인습적으로 전형화 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독자적인 노년의 삶을 기획한다. 그의 기획은 몰개성적으로 몰아가는 노인이라는 집단개념을 수용하지 않고 개성을 존중하며 자신이 스스로의 삶의 주체자이기를 견지하는 삶의 방식이다. 작가는 「자존심」에서 이렇게 자존심 강한 주인공의 이름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그의 익명성은 집단개념의 일원을 거부하는 아이러니로 큰 효과를 지닌다. 또한 그의 자존심이 긍정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은, 독특한 사고로 인해 그가 대인 기피나 일방적인 독백을 하는 경우가 없고, 오나이다와 상호작용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꿈이 산을 넘어오다」는 치매에 걸린 여성노인 피오나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에게 최상의 삶을 모색하고 직접 실행하는 담론을 내포한다. 「호수를 바라보며」에서 피오나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인 낸시는 꿈속에서만 삶의 주체성을 지키려는 긍정의 의지를 보여준다. 「돌리」는 두 소설과 달리 노인 부부가 나이를 잊고 역동적인 삶을 영위하는 모습을 담는다. 이 소설들은 모두 노인들이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든지, 종국이 아닌 유동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긍정을 담고 있다. 먼로는 거대담론을 주장하는 대신에 현실적으로 절실한 요구에 긍정적인 하나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Works Cited

- Bakhtin, Mikhail. *The Dialogic Imagination*. Edited by Michael Holquist. Trans. Caryl Emerson and Michael Holquist. Austin: U of Texas P, 1981. Print.

- Braithwaite, Valerie. "Reducing Ageism." *Ageism: Stereotyping and Prejudice against Older Persons*. Ed. Todd D. Nelson. Massachusetts: MIT P, 2004. 311-38. Print.
- Brennan, Zoe. *The Old Woman in Recent Fiction*. North Carolina: McFarland, 2005. Print.
- Bytheway, Bill. *Ageism*. Philadelphia: Open UP, 1995. Print.
- Coupland, Nikolas. and Justine Coupland. "Discourses of Ageism and Anti-Ageism." *Journal of Ageing Studies* 7.3 (1993): 279-301. Print.
- Cox, Ailsa. *Alice Munro*. Devon: Northcote House Publishers Ltd, 2004. Print.
- Cuddy, Amy J. C., and Susan T. Fiske. "Doddering but Dear: Process, Content, and Function in Stereotyping of Older Persons." *Ageism: Stereotyping and Prejudice against Older Persons*. Ed. Todd D. Nelson. Massachusetts: MIT P, 2004. 3-26. Print.
- Gerike, Ann E. "On Fray Hair and Oppressed Brains." *Woman, Ageing, and Ageism*. Ed. Evelyn R. Rosenthal. New York: Routledge, 1990. 35-46. Print.
- Goldman, Marlene. "Re-imagining Dementia in the Fourth Age." *Sociology of Health & Illness* 39.2 (2017): 285-302. Print.
- Golub, Sarit A., Allan Filipowicz., and Ellen J. Langer. "Acting Your Age." *Ageism: Stereotyping and Prejudice against Older Persons*. Ed. Todd D. Nelson. Massachusetts: MIT P, 2004. 277-94. Print.
- Greenberg, Jeff, Jeff Schimel, and Andy Martens. "Ageism: Denying the Face of the Future." *Ageism: Stereotyping and Prejudice against Older Persons*. Ed. Todd D. Nelson. Massachusetts: MIT P, 2004. 27-48. Print.
- Guinn-Musgrove, Sandra L. "Extended Care-Giving: The Experience of Surviving Spouses." *Woman, Ageing, and Ageism*. Ed. Evelyn R. Rosenthal. New York: Routledge, 1990. 93-108. Print.
- Heidegger, Martin. *Being and Time*. Trans. John Macquarrie & Edward Robinson.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2008. Print.
- Howells, Coral Ann. *Alice Munro: Contemporary World Writers*. New York: Manchester UP, 1998. Print.
- Kite, Mary E., Lisa Smith Wagner. "Attitude toward Older Adults." *Ageism: Stereotyping and Prejudice against Older Persons*. Ed. Todd D. Nelson. Massachusetts: MIT P, 2004. 129-61. Print.
- May, Charles E. "The Short Story's Way of Meaning: Alice Munro's Passion." *Narrative* 20.2 (2012); 172-82. Print.
- McCulloch, Jeanne. and Mona Simpson. "Interview with Alice Munro." *Paris Review* 131 (1994): 227-64. Print.
- Munro, Alice. "The Bear Came Over the Mountain." *Hateship, Friendship, Courtship, Loveship, Marriage*. New York: Vintage Books, 2001. 275-323. Print.
- _____. "Dolly." *Dear Life*. New York: Alfred A. Knopf, 2012. 233-56. Print.

- _____. "In Sight of the Lake." *Dear Life*. New York: Alfred A. Knopf, 2012. 217-32. Print.
- _____, "Pride." *Dear Life*. New York: Alfred A. Knopf, 2012. 133-53. Print.
- _____, "What Is Real?" *Making It New: Contemporary Canadian Stories*. Ed. John Metcalf. Toronto: Methuen, 1982. 223-26. Print.
- Palmore, Erdman B. *Ageism: Negative and Positive*. New York: Springer, 1999. Print.
- Scrutton, Steve Arnold. "Ageism: The Foundation of Age Discrimination." *Age: The Unrecognised Discrimination*. Ed. Evelyn McEwen. London: Age Concern, 1990. 12-27. Print.

남승숙 (한남대학교/교수)

주소: (34430) 대전시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이메일: nam8208@hanmail.net

논문접수일: 2020. 06. 30 / 심사완료일: 2020. 08. 12 / 게재확정일: 2020. 08. 12